

# ‘로컬푸드’ 군장병 식탁 올라 농가 소득 큰 도움

농식품부·장성군·상무대 상생 업무협약  
15개 품목·74개 농가 계약 공급비중 40%  
상무대, ‘팍밀리마켓’ 직거래장터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로컬푸드 공급 확대 지역으로 장성군을 선정하고, 지역에서 재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군 부대 급식에 공급하도록 했다. <장성군 제공>

지역에서 재배된 ‘로컬푸드’가 군장병 식탁에 잇따라 오르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군은 연간 수백억원 규모 급식 수요가 있는 상무대에 계약재배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장성군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공급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비접경지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상무대에는 호남권 군부대에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51군수지원단(급양대)과 간부를 양성하는 5개의 학교 등이 있는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 시설로서 농산물 급식 수요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

군부대의 계획적인 농산물 구매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까지 10% 미만이었던 지역농가와 계약재배 비율은 올해 15개 품목 74개 농가로 늘어나 로컬푸드 공급비중 40%를 달성했다.

지난 2월 유두석 장성군수, 김만기 상무대 보병학교장, 이기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 등은 상무대 보병학교에서 ‘장성농산물 소비촉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군이 우수 협력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상무대는 장병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대해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장성군은 오는 2020년까지 반가공 및 세척시설 구축과 저온블류저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반가공(세척 및 절단) 식재료 등 변화하고 있는 군 급식 경향에 맞추면서 오는 2022년까지 지역농산물 공급비중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군 급식 외에도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군부대의 노력은 계속됐다.

상무대는 직거래 장터 ‘팍밀리마켓’ (Farm-Milli Market)을 1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상무아파트에서 매달 열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첫 행사는 장성군, 상무대,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주관하고 6개 단체 22개 팀이 참여했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상무대 내 보병회관 및 상무회관에서 ‘가정에(愛)달 상무대 5월의 선물전’을 개최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장성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농촌형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로컬푸드 안정공급 기반구축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군 급식·학교급식 등 공공급식분야에 지역농산물 소비를 연

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상무대에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 상가를 찾는 장병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혜택은 상무대뿐 아니라 장성 농업인과 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상무대와의 상생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군장병에게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로컬푸드 공급 확대 지역을 접경지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비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식재료 수요가 많은 상무대와 산촌현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지수 2100선 안착 시도할 듯  
‘산타렐리’ 등 점진적 상승 흐름 기대

영국과 유럽연합(EU)합의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해소되고 G2협상은 경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합의가 유력한 상황이다. 합의 시점과 합의의 세부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의구심을 보이며 중국을 방문한 미국 관계자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과 기술 이전 강제와 같은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고 4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동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1단계 합의에서 관세 철폐 또는 12월15일 관세 부과 철폐 등을 거론하고 있어 사명 직전까지 기싸움이 지속될 것이다.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7월, 9월(1.75%-2.0%→1.50%-1.75%)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금리를 인하했다. 경기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향후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금리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세 차례 선제적 금리인하 이후 당분간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10월 FOMC였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하려면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시장기대치를 부합했다.

주식 투자라면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나, ‘산타렐리’ 또는 ‘1월 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주식 시장의 계절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계절적 흐름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 선진국시장과 중국이나 한국 등에도 의미있게 존재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코스피 지수는 5월-10월 평균수익률이 1.4% 이지만 11월-4월 평균수익률은 10.7%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11월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29일)와 중국의 ‘광군제’ (11일) 등 대규모 세일행사에 따른 기업의 실적개선기대가 있고 수급적 측면에서도 12월에는 배당투자기대감으로 인덱스 펀드들이 주식편입을 늘리고 펀드는 운용수익관리를 위한 연말 윈도우드레싱효과가 있다. 1월에는 정부와 기업이 신년정책발표가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전세계 각국증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월 효과’가 있다.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11월-4월 절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번 중 5번에 불과해 상승확률이 73.6%에 달했다. 특히 11월-4월까지 상대적 강세는 코스피지수 보다 코스닥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저항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 관심이 필요하다.

필자는 코스피지수 2100pt에 대한 부담을 몇 차례 언급했는데 현시점은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회귀인지 돌파될지 주목이 필요하다. 이번주에는 미ISM비제조업지수, 독일10월 Markit PMI 제조업지수, 미시간대소비자지수, 중국수출입지수 등 주요국 경제지표가 집중되고 있다.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간 괴리감으로 우려감이 존재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스물덩에 대한 의지가 높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증시의 긍정적 흐름에 따라 돌발 악재만 없다면 2100선 안착을 시도하는 한주가 될 수 있다. 코스피지수가 2100선에 안착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계절적 효과와 함께 2200선까지 점진적 상승 흐름도 가능해 보인다.

정계두  
(유틸투자증권 광주지점장)

## 광주·전남 농가 28만여 명

### 올해 농업직불금 2290억원 받는다

올해 광주·전남 농가 28만여 명이 농업직불금 2290억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평균 수령액(118만2000원)보다 36만9000원 가량 적은 81만38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발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4-8일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억원 감소한 1조497억원으로, 모두 1135명에게 돌아간다. 전국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만5000원이며,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만9000원 ▲밭 직불금 33만7000원 ▲조건불리 직불금 35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조지를 관리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불금을 받는 농민

#### ■올해 광주·전남 직불금 계획

부문	인원	평균 수령액
쌀고정	13만8745명	122만5700원
밭농업	11만2252명	45만3300원
조건불리(전남)	3만408명	26만5100원
합계	28만1405명	81만3800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은 28만1405명으로, 지난해 보다 44.9%(8만7000명) 증가했지만 총 수령액은 6억1000만원 줄었다.

광주·전남 쌀 고정 직불금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886명(2.1%↑) 늘어난 13만8745명을 기록했지만 수령액은 1.9% 줄어든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30개 농협 조합장, WTO 개도국 포기 정부대책 촉구



광주·전남 30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30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3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에 따르면 “광주 14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최근 광주본부에 모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농업 대책을 촉구했

으며 같은 날 전남 16개 조합장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들은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농업 예산 반영 ▲선진국형 직불제 전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의 직불제 예산반영 ▲확실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의 제도와 등을 요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